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부부간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Non-Professional Working Wife's Marital Adjustment, Communcation Style and Their Interrelationship

영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도 미 향

Dept. of Home Economics

Young Nam University

Mi Hyang Do

영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최 외 선

Dept. of Home Economics

Young Nam University

Prof : Wae Sun Choi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2. 변인의 구성 및 측정도구 |
| II. 이론적 배경 | 3.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
| 1. 취업주부의 결혼적응 | IV. 결과 및 해석 |
| 2. 부부간 의사소통양식 | 1. 결혼적응 |
| 3. 결혼적응과 의사소통양식 | 2. 의사소통양식 |
| 4. 측정변수에 대한 선행연구 | 3. 결혼적응과 의사소통양식 |
| III. 연구방법 | V. 결론 및 제언 |
| 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basic data for satisfactory marital adjustment and funtional commnication by investigating marital adjustment, communication style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m, for non-professional working wive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May, 1989 in Taegu on 470 subjects, who are non-professional working wives as questions and interviews.

For analysis of data, percentile, frequencies, ANOVA, Scheffé-test, X²-test, t-test were used, and through such research procedure the following major findings were obtained ;

1) The marital adjustment of nonprofessional working wives were relatively high with 78 in percentile.

2) Among the related variables, husband's income, job, support and wife's motive of employment, job, age on the marital adjustment and husband's occupation, educational

level, income, the length of marriage and number of children, family style on the communication style hav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3) The higher the degree of emotional disclosure and the more open the verbal expression, the higher the level of marriage adjustment.

4) In communication style, marriage adjustment was found to increase in such order as contactful style, speculative style, conventional style, and controlling style. Such were found to affect significantly marital adjustment.

I. 문제의 제기

근대사회의 계층구조가 인간의 업적과 능력을 중시하는 개방형으로 변화되고 종래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범이 근대화 과정에서 차츰 와해되면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더우기 산업화의 진전은 재반 기술적 혁신을 수반하게 됨으로서 여성의 취업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사무직 및 판매직등 여성의 취업이 가능한 직종을 증가시킴에 따라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다. 또한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증대, 가전제품의 보급 및 핵가족화와 출산을 저하로 인한 가사노동 시간의 단축, 생활향상욕구에 따른 추가수입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 35.3%에서 1987년에는 47.5%로 증가하였다(경제기획원, 1987). 그 중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5.6%(이효재, 조 형, 1976)에서 1985년 42.5%(노동청, 1986)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기혼여성의 직장 진출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면에서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Safilios & Rothchild, 1967; Gross Crandall & Knoll, 1980).

현재 우리의 가족체제에서 기혼여성이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직업역할과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여성역할의 이중부담 뿐만아니라 내면적인 역할갈등 및 혼돈감 때문에 기혼직업여성의 결혼적응은 남성들의 직업-결혼관계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가정은 부부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가장 핵심을 두는 우애적 애정집단으로 그 기능이 바뀌어 가고 있다(Burgess, 1960). 따라서 부부간의 상호만족감이 증진될수록 현대가족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가족원의 건전한 정서 및 인성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을 순조롭고 화목하게 잘 영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의 적응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인격체가 결합된 결혼을 원만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공유하는 세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적절한 규준과 규칙에 의해서 안정된 세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부부들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경험이 서로의 것으로 재확립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결여는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누적 심화시켜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대 가정생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양식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취업으로 인해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기혼 직업여성에게는 더욱 더 적절한 의사소통양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취업여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다. 70년대 연구들은 주로 여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김순옥, 1972; 박진숙, 1977; 유영주, 1977).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여러 계층의 직종을 포괄적으로 살펴 본 연구(서동인, 1985; 김경숙,

1987)가 몇 편 있었다.

사회구조면에서 전문직과 비전문직은(정해은 · 서병숙, 1983) 학력, 취업동기, 경제적 수입에서 많은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해 볼 때 이를 포괄적으로 묶어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직종별 여성 취업분포(경제기획원, 1987)를 고려할 때 여성 취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교사, 의사, 관리직 등의 전문직보다 판매직, 단순 노동직 등이 결혼적응에 있어 훨씬 낫다는 연구(신성자, 1981; 김경숙, 1987)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비전문직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관한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여, 그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밝히고,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보다 원만한 결혼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은 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1)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의사소통양식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의사소통양식은 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1) 결혼적응은 의사소통차원의 감정노출 정도와 언어표현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결혼적응은 의사소통양식의 친숙형, 의견형, 분석형, 차단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취업주부의 결혼적응

결혼한 부부 두 사람은 성을 달리하고 지금까지의 성장경험을 달리하는 개별적인 개체들이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써 그들이 듣고 보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서로 같은 반응을 일으키거나 공통된 경험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적응 문제가 제기된다(최신덕, 1973).

부부간의 결혼적응에 대한 최초의 연구 시도는 Hamilton(1929)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그 후 Terman(1938) 및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또한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는 결혼의 행과 불행을 구별짓는 하나의 특성으로 결혼적응을 중요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결혼적응은 결혼행복, 결혼만족등의 다른 용어와 큰 구별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유은희(1974)는 결혼적응이란 부부가 갈등을 피하거나 해결해서 그 결혼에 만족하고, 부부 상호간에 공통된 관심사와 활동을 발달시킴으로서 결혼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고 느끼도록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기혼여성의 직업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오늘날에 있어 우리나라의 취업주부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가정내 역할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그 역할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정밖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가정내 역할의 축소 내지는 재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갈등을 수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아내의 직업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논란이 되어 왔다. 이동원(1976)은 한국 직업여성들의 대부분은 가정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정과 직장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가 상호 동의하는 형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Booth와 Welch(1978)는 가족의 생활수준향상, 여성의 지위향상,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감사, 가족의 민주적 결정권에서 기여, 직업을 통한 사회적 접촉에서의 즐거움등이 취업에서 파생된 갈등을 높은 수준으로 보상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취업여성의 결혼적응은 비취업여성의 결혼적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수 편 있다(Burke,

1976; Booth, 1977; Houseknecht, 1981).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부인의 취업은 결혼생활에 있어 부부간의 적응과 만족에 역효과를 미치거나(Feldman & Feldman, 1974; 정용재, 1985), 긴장과 갈등을 가져온다는 연구(Poloma, 1970; Kessler & Macrae, 1982)도 있다.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견해는 대체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의거한 여성 및 남성의 자아특성과 부인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역할갈등이라는 두가지 개념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Hoffman Nye & Bahr, 1974). Parsons (Chafetz, 1972, 재인용)는 부부가 직업활동을 할 경우 표면적 관계에서 경쟁이 도입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에 해로운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규련(1984), 송말희(1986) 등은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가 없다고 하였다.

주부의 취업에 대한 영향은 계층별로 차이나 나타나 낮은 계층에서의 주부 취업은 결혼적응에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Burr, Hill, Nye & Reiss, 1979). 신성자(1981), 이기영(1984)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여성의 결혼적응은 높았으며 비전문직은 훨씬 낮은 적응도를 보였다. 그러나 Blood(1960)는 낮은 계층에서는 부인의 소득이 가정경제에 더욱 기여하기 때문에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반면에, 높은 계층에서는 그다지 긴요하지 않은 수입때문에 가사를 소홀히 하게 됨으로 남편의 불만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취업주부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활발히 시행되었는데, 초기 연구는 대부분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 이중역할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이나, 부부권력관계, 결혼적응관계등으로 연구의 내용이 세분화되는 경향이다. 이 중 취업주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는 취업주부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함에 있어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 의사소통양식

Gross, Crandoll과 Knoll(1980)에 따르면, 의사

소통은 가정행동의 기본적 양상으로서 가족의 목표설정, 목표성취 그리고 가족행동의 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의 지적, 정서적 존재로서의 의사소통은 호흡이나 음식물의 역할에 비할 수 있는 생존체계의 하나이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서로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각자의 생활이나 협력적인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양식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지식, 정보, 의견, 감정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박경자, 1981) 또한 양식이란 일정한 모양이나 격식을 말한다(동아출판사 편집부, 1978). 그러므로 의사소통양식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여주는 데 개인간의 친밀성의 공유와 개인의 사고, 가치, 관심등의 표현을 향상시키거나 억제하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특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고, 의사소통 규정을 규명하려면 의사소통양식에 관한 고찰이 유용하다(Hakwins, et al., 1977, 1980).

Raush, Greif와 Nugent(Adams, 1980, 재인용)는 가장 호혜적인 부부관계란 각자가 다양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서로가 허용하면서 상호보조적이고 조화된 의사소통양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같이 의사소통양식은 가족문제, 가족구조, 가족원의 사회적 성격등을 가장 잘 반영하고 관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의사소통양식은 크게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Gibb(1961)은 기능적 의사소통을 지지적 의사소통(supportive communication)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겐 성실한 정보의 추구 및 정보제공, 자발적인 문제해결, 감정이입이 되는 이해, 동등함등이 있다. 또한 그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방어적 의사소통(defensive communication)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겐 평가적인 독단, 통제와 전략, 무관심, 우월성이 있다. 이상에서의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하면서 의사소통과정을 사실에 대한 언어적 표현정도와 감정노출정도에 따라 네가지로 분류한 Hawkins(1980)등의 의

의사소통양식을 본 연구에 있어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식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들의 의사소통양식은 언어적 표현정도에 따라서 개방적인 형태와 폐쇄적인 형태로 나누어 지고, 감정노출에 따라서는 감정의 노출정도가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감정노출정도가 높고 언어적인 표현정도가 개방적인 '친숙형'(Contactful style) 둘째, 감정노출정도가 낮고 언어적 표현정도가 개방적인 '의견형'(speculative style) 셋째, 감정노출정도가 높고 언어적 표현정도가 폐쇄적인 '억제형'(controlling style) 이라 하고 마지막으로 감정노출정도가 낮고 언어적 표현정도가 폐쇄적인 '차단형'(conventional style)등이고 이들을 도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Hakwins등의 의사소통양식의 분류

언어표현정도 감정노출정도	개방적	폐쇄적
높은 감정노출	친숙형	억제형
낮은 감정노출	의견형	차단형

우리나라에서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198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의 역사가 매우 짧고, 연구 경향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자체에 대한 연구(송성자, 1985; 송말희, 1986; 이기숙, 1988)와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결혼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권정임, 1981; 정용재, 1985; 김인숙, 1988)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취업주부만을 별도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의사소통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다.

3. 결혼적응과 의사소통양식과의 관계

부부는 갈등의 해소와 더욱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의 적응에 요하는 모든 행위 바로 그 자체가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의사소통 사용의 효율성에 따라 결혼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Glick & Kessler, 1980). 그래서 Fit-

zpatrick(1982)은 부부간의 대인관계 연구에서 의사소통과 결혼적응이라는 두가지 구조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고, Stair(1983, 송성자, 1985, 재인용) 역시 결혼의 행. 불행은 부부의 의사소통능력과 결혼적응태도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과 결혼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의 두가지 차원 즉, 언어표현정도와 감정노출정도에 따른 결혼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표현정도에 따른 결혼적응에서, Hicks와 Platt(1970)는 행복한 부부일수록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며,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가진다고 하였다. 또 Boy와 Roach(1977)는 부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적 표현 정도가 부부 모두 개방적인 집단이 폐쇄적인 집단 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Levinger와 Senn(1967)은 기쁜 감정의 개방이 불쾌한 감정의 개방보다 결혼적응에 높게 상관됨을 밝혔다.

둘째, 감정노출정도에 따른 결혼적응을 살펴보면, Davidson(1983)등은 결혼생활에서 의사소통의 부족은 결혼생활의 붕괴와 관련되어 갈등적인 관계를 가져오는 반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에 대한 사랑, 행복 그리고 슬픔의 표현도 자신의 결혼적응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했다. 또한 Lewis와 Spanier(1970)도 부부간의 감정이입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의 질이 높다고 했고, Komarovsky(1958), Jorgensen과 Gaudy(1980)등 다수의 연구들도 감정노출과 결혼적응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4. 측정변수에 대한 선행연구

1) 학 력

Blood(1960), 송말희(1986), 전길량(1988)등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Terman(1938), Burgess(1953)등은 학력이 결혼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사소통과 학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이 증대된다고 하였다(Blood & Wolfe, 1960; 김은주, 1979). Hawkins(1977), 원효중(1983)등은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양식이 보다 개방적이고 높은 자기표출의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혜정(1983)등은 교육수준이 부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자녀수

Hoffman(1970), Nye(1974)등은 자녀의 수와 결혼적용사이에는 역관계가 있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결혼적용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Feldman(유영주, 1982, 재인용)등에 의하면 어린이가 있는 부부보다 어린이가 없는 부부가 좀 더 대화를 많이하고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고 그들의 결혼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또 박민숙(1985)과 김정옥·홍신례(1987)등은 자녀수가 적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Figley(1973), 박경자(1979)는 자녀수에 따라 부부간의 의사소통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3. 부부의 직종

Goode(1953), 박미령(1987)등은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결혼적용과 만족도는 높다고 하였다. 또한 부인의 직업에 있어서도 전문직일수록 결혼적용이 더 높다(신성자, 1981; 이기영, 1984)고 하였다. 한편, 의사소통양식에 있어서는 남편이 하위직에 종사하는 부인이 친숙형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원효중, 1983)고 하였다.

4. 수입

일반적으로 수입에 만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부가 좋은 적응상태에 있다고 하였으며, 수입문제와 결혼적용은 상관됨을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Lawrence, 1959; Deacon & Firebaugh, 1975; 田村喜代, 1966). 그러나 경제요인이 결혼적용과 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지 않음도 일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Glenn & Weaver, 1978). 그리고 부인의 수입과 결혼적용과의 관계를 보면 Parsons(1943)등 다수의 연구에서 부인의

수입이 많을수록 부부관계는 나빠지고 문제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몇몇 연구들(Richardson, 1979; Simpson & England, 1981)은 부인의 수입이 결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옥·홍신례(1987)는 부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양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5) 결혼생활년수

대체로 결혼생활년수가 증가할수록 직선적으로 결혼적용이 감소하거나 U형 곡선모양을 나타낸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으나, 우리나라 가족주기별 부부적용은 가족주기 초에 높으며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감소하다가 자녀들의 중등기에 다시 감소하여 가족주기 마지막 단계에는 전 가족주기중 가장 낮고(이기숙 1984) 이러한 경향은 자녀양육기간의 단축, 변화하는 가족역할, 그리고 중노년기에 자유스런 시간이 많아짐에 따른 새로운 자아발견 및 부부애의 발견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Komarovsky(1967), 이근후·이동원(1973)등은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정도는 줄어든다고 하였으나 이정순(1982), 조혜정(1983)등은 결혼생활년수는 의사소통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6) 가족 형태

최재석(1970)은 시부모 동거가족에서는 취업주부가 일반주부보다 부부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하였으나, 송말희(1986), 이연주(1986)의 연구에서는 부부적용은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가족형태와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경숙(1982)은 부부가족보다 직계가족이 자연스러운 의견교환의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박경자(1981)는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7) 남편의 지지도

Burke와 Weir(1976, 1977)는 부인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유무는 취업여성들이 경험하는 역할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중재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지지가 아내의 결혼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as, 1980; Goode, 1982).

8) 취업동기

일반적으로 볼 때 취업주부가 자기발전등의 이유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적용이 다소 높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적용이 보통이거나 낮은 경향이라 할 수 있다(Orden & Bradburn, 1969; Rothschild, 1970).

III. 연구방법

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용은 변인(부부의 학력, 부인의 연령, 부부의 직업, 부부의 수입, 결혼생활년수, 가족형태, 자녀수, 취업의 동기, 남편의 지지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비전문직인 취업주부의 의사소통양식은 변인(남편의 학력, 부부의 직업, 남편의 수입, 결혼생활년수, 가족형태,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용은 의사소통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1. 감정도출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적용도 높을 것이다.

III-2. 언어표현정도가 개방적일수록 결혼적용도 높을 것이다.

III-3. 의사소통양식의 친숙형, 의견형, 억제형, 차단형에 따라 결혼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 측정도구 및 변인의 구성

결혼적용척도는 Locke등(1958)의 결혼적용척도를 최외선(1979)이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의견일치, 성적행동, 애정적 친밀성, 배우자에 대한 만족, 동반자 관계등 5개 하위영역의 21문항에 대하여 Cronbach 신뢰도 검사결과 α 계수가 .83으로 나타나 사용 가능성이 인정되어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점수로써 총 결혼적용 점수를 환산하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Hawkins(1976) 등의 질문을 기초로 원효종(1983)이 작성한 10문항 중 부인 자신의 행동지각에 대한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Cronbach의 α 계수가 .72로 신뢰성 있는 척도로 판명되었고, 각 문항은 부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해 남편에게 긍정적으로 감정도출하는 정도와 언어표현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응답은 곧 의사소통양식을 나타내고, 가장 빈번히 답변한 번호가 곧 그사람의 의사소통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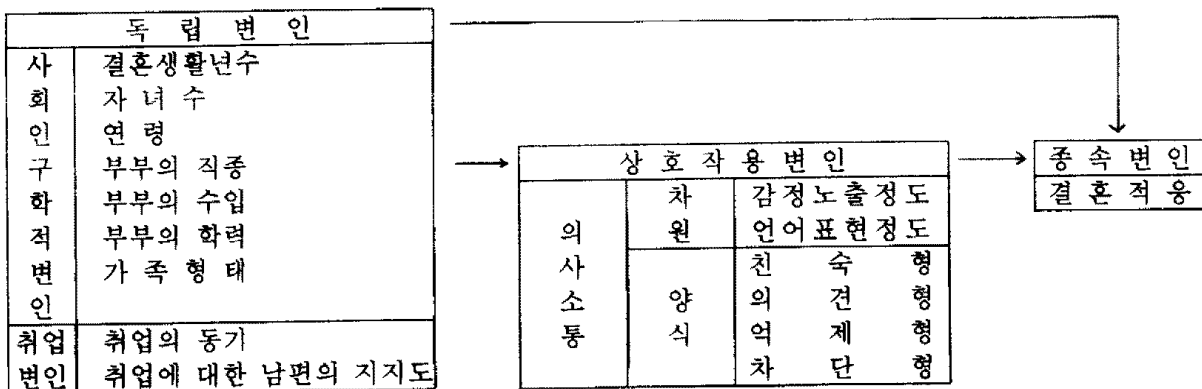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3. 자료분석 및 조사대상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결혼적용과 각 변인과의 관계는 변량분석(ANOVA),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Scheffé-test를 하였다. 의사소통양식과 각 변인과의 관계는 X^2 -test가 적용되었고, 의사소통양식과 결혼적용과의 관계는 변량분석(ANOVA), Scheffé-test를, 의사소통차원에서 언어표현, 감정노출정도와 결혼적용과의 관계를 t-test로 검증하였다. 자료는 영남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며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1989년 5월

1일~5월 10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조사와 면접방법을 병행하여 설문지 총 600부를 배부하여 510부를 회수하였다(총회수율 85%). 그 중 배우자가 없는 취업주부의 설문지 40부를 조사분석시 대상에서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사용된 것은 470부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2와 같다.

IV. 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경향

결혼적용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적용 평균값은 119.81점(백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470)

변수	N(%)		변수	N(%)		
	집단	N(%)		집단	N(%)	
부인 의 학 력	국졸 이하	59(12.5)	남편 의 학 력	국졸 이하	19(4.0)	
	중졸	166(35.3)		중졸	75(16.0)	
	고졸	210(44.7)		고졸	256(54.5)	
	대졸 이상	35(7.4)		대졸 이상	120(25.5)	
부인 의 직 종	판매직	309(65.7)	남편 의 직 종	전문관리직	25(5.3)	
	서비스직	39(8.3)		사무직	175(37.2)	
	단순·노동직	122(25.9)		판매		
부인 의 수 입	19만원 이하	120(25.5)	남편 의 수 입	없음	27(5.7)	
	20 - 29만원	171(36.4)		29만원 이하	42(9.0)	
	30 - 39만원	101(21.5)		30 - 39만원	66(14.0)	
	40 - 49만원	45(9.6)		40 - 49만원	106(22.6)	
	50만원 이상	33(7.1)		50 - 59만원	114(24.3)	
가 족 태	핵가족	279(59.4)	60 - 69만원	58(12.3)		
	확대가족	191(40.6)	70만원 이상	57(12.1)		
	부인 의 연 령	30세 이하	82(17.4)	취업 의 동 기	경제적원인	319(68.1)
		31 - 40세	250(53.2)		비경제적원인	149(31.9)
41 - 50세		113(24.0)	남편 의 지 지 도		협조적	252(53.6)
51세 이상		24(5.1)			비협조적	218(46.4)
자녀 수	0명	8(1.7)	결혼 생활 수 년 수	5년 이하	72(15.3)	
	1명	90(19.1)		6 - 10년	120(25.5)	
	2명	225(47.9)		11 - 15년	109(23.2)	
	3명	102(21.7)		16 - 20년	86(18.3)	
	4명	32(6.8)		21 - 25년	42(8.9)	
	5명 이상	13(2.7)		26년 이상	40(8.8)	

1) 총 응답자수가 다른 것은 무응답이 있기 때문이다.

표 3.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용점수분포

빈도·백분율 결혼적용점수	N(%)	비고
90-100	31(6.6)	Mean : 119.81 (백분율 : 75.8) S.D : 13.45
101-110	97(20.6)	
111-120	122(26.0)	
121-130	102(21.7)	
131-140	87(18.5)	
141-150	31(6.6)	
합 계	470(100.0)	

율로 75.8점)이었으며, 최고 152점 최하 90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수는 111~120점(26%) 사이로 대체로 결혼적용이 원만한 편이다.

2) 결혼적용과 재 변인과의 관계

가설에 따르는 각 변인과 결혼적용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하고 각 하위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기 위하여 Schffe-test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남편의 학력에 따른 결혼적용의 차이는 남편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때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국졸, 고졸, 그리고 중졸순으로 유의($P < .05$)하게 나타났다.

부인의 직업과 결혼적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인의 직업이 써어비스직인 경우가 가장 결혼적용도가 높았고 그 다음이 단순노동직, 판매직 순이다. 또한 써어비스직과 판매직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남편의 직업에 따른 결혼적용의 차이는 남편이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결혼적용이 가장 높았고 근로직, 무직이 가장 낮은 결혼적용을 나타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5$)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무직과 무직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적용이 높다는 선행연구(Goode, 1953; 임정빈·이종숙, 1989)와 일치한다.

남편의 수입은 결혼적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5$)하게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수입이 60~69만원, 70만원 이상 집단과 수입이 없는 집단간

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체로 남편수입이 많을 때, 부인의 결혼적용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을 때 부인의 결혼적용도 차이를 보면, 부인의 수입이 남편 보다 많은 경우의 결혼적용점수는 남편의 수입이 더 많은 경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5$)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인의 수입이 많을 수록 부부관계는 나빠지고 문제는 증가한다는 선행연구(Santos, 1975; Becker, 1977)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편의 수입이 많고 적음도 결혼적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부간의 수입비중도 결혼적용에 상당히 주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결혼생활년수에 따른 결혼적용은 유의미한($P < .001$)관계를 나타냈다. 즉, 결혼생활 초기에 결혼적용이 가장 높고 결혼생활년수가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결혼후 21~25년 사이에는 증가하였고 26년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여 이기숙(198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고, 이것은 자녀양육, 사회적 지위획득 경제적 안정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부인의 연령에 따른 결혼적용의 차이를 보면,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적용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01$)하게 나타났다. 30세 이하 집단과 31~40세, 41~50세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대체로 연령이 적을수록 결혼적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취업동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에서 보다 비경제적인 이유에서 취업한 경우가 훨씬 더 높은 결혼적용점수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1$)하게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가 자기발전 등을 이유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적용이 다소 높다고 한 선행연구(Orden & bradburn, 1969; Rothchild, 1970)결과와 일치한다.

취업년수에 따른 결혼적용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부인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정도는 유의미($P < .01$)하게 나타나 남편이 협조적인 경우가 비협조적인 경우 보다 결혼적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 결혼적응과 제변인과의 관계

변수	결혼적응		평균	Scheffé-test	F값 및 유의도
	집단				
부인의 학력	국졸이하	하	117.33		1.05
	중졸	중	120.21		
	고졸	중	119.93		
	대졸이상	상	121.54		
남편의 학력	국졸이하	하	119.72		3.00*
	중졸	중	118.67		
	고졸	중	118.80		
	대졸이상	상	122.76		
남편의 직종	전문관리직	직	122.16	a	3.14*
	사무직	직	121.97		
	판매서비스직	직	120.07		
	자영업	업	119.40		
	단순노동직	직	117.72		
	무직	직	112.93		
부인의 직종	판매직	직	118.49	b	7.05***
	단순노동직	직	120.92		
	서비스직	직	126.62		
부인과 남편의 수입비교	부인 > 남편		115.41		10.78**
	부인 < 남편		120.80		
결혼생활 년수	5년 이하		126.06	a	6.03***
	6-10년		121.65		
	11-15년		117.67		
	16-20년		116.02		
	21-25년		119.68		
	26년 이상		117.32		
가족 형태	핵가족	족	119.82		0.00
	확대가족	족	119.86		
자녀 수	0명		130.75		1.192
	1명		121.57		
	2명		119.35		
	3명		117.84		
	4명		120.81		
	5명 이상		121.92		
부인의 연령	30세 이하		126.23	a	8.78***
	31-40세		119.05		
	41-50세		116.89		
	51세 이상		118.58		
취업 동기	경제적	적	118.73		11.25**
	비경제적	적	121.99		
남편의 지지도	협조적	적	121.60		3.02**
	비협조적	적	117.67		

1) a, b문자가 다른 것은 $p < .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음.

2)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의 결과로서 각 변인에 따라 결혼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 부부간 의사소통양식

1) 일반적 경향

본 조사대상자들의 의사소통양식의 일반적 경향은 표 5와 같다. 친숙형과 의견형을 기능적인, 억제형과 차단형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양식으로 볼 때, 76.6%가 기능적인 의사소통양식을 사용하고, 23.4%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근후·이동원(1973), 김인숙(1987)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고 도시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의식보다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속에서 대체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의사소통양식과 제변인과의 관계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의사소통양식과 제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X²-test하였다 (표 6).

남편의 학력에 따라 의사소통양식은 유의미(P<.05)한 차이를 나타내어 대졸, 고졸, 국졸, 중졸 순으로 친숙형이 많았다. 반면, 차단형은 국졸, 고졸, 중졸, 대졸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양식이 보다 개방적이고 높은 자기노출의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Hawkins, Blood & Wolf, 196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이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사소통기술을 개발시키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가지므로, 결혼생활에서 정보 및 의견을 나누고 애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교육을 덜 받은 사람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의 학력과 직업에 따른 의사소통양식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미(P<.001)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친숙형이 가장 많았고, 차단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사무직, 생산직, 자영업, 판매직, 무직의 순으로 친숙형이 많았고, 차단형은 무직이 가장 많아 직업이 없는 경우 열등의식등으로 제한된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회피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남편의 직업 유무에도 의사소통양식이 관계되어 짐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수입은 의사소통양식에 상당히 유의한(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수입이 70만원 이상일 때는 73.7%가 친숙형을, 차단형은 3.5% 뿐이었다. 그러나 29만원이하의 친숙형이 가장 낮고 차단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수입이 적으면 가정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부인의 남편에 대한 존경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적은 수입은 부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생활년수에 따라 의사소통양식은 유의하게(P<.05) 나타났다. 친숙형은 결혼생활년수가 가장 짧은 1~5년 사이가 70.8%로 가장 많고 26년 이상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인 42.5%가 친숙형을 사용하였다. 즉,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친숙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고,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수단이 단순화되어 얼굴표정과 몸짓이 점차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어 언어적 의사소통은 감소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1~25년 사이에 친숙형의 사용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자녀의 출가 후 부부 두사람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되어지는 때문이고 이 기간동안에 결혼적응 점수가 다시 높아지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자녀수에 따라 의사소통양식은 유의한(P<.05) 차이를 나타내어 자녀가 많을 수록 친숙형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자녀가 적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박민숙, 1985; 홍신례, 1987)와

표 5. 의사소통양식의 일반적 경향

의사소통양식	N(%)	N(%)
친숙형		287(61.1)
의견형		73(15.5)
억제형		32(6.8)
차단형		78(16.6)
합계		470(100.0)

일치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자녀수는 주부의 연령 및 결혼생활년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가족형태에 따라 의사소통양식은 유의한($P < .01$) 차이로 나타내어 확대 가족이 핵가족보다 약간 더 친숙형이 많았다. 이는 김경숙(198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가족의 형태가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각 변인에 따라 의사소통양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대부분 채택되었다.

표 6. 의사소통양식과 제변인과의 관계

N(%)

변수	의사소통양식 집단	친숙형	의견형	억제형	차단형	합 계	비 고
남편의 학 력	국 졸 이 하	10(55.6)	1(5.6)	3(16.6)	4(22.2)	18(100.0)	$X^2=17.62^*$ df=9
	중 졸	40(55.6)	20(26.7)	5(6.7)	10(13.3)	75(100.0)	
	고 졸	153(59.8)	37(14.5)	16(6.3)	50(19.5)	156(100.0)	
	대 졸 이 상	84(70.0)	14(11.7)	8(6.7)	14(11.7)	120(100.0)	
남편의 직 업	진 문 직	19(76.0)	0(0.0)	3(12.0)	2(12.0)	25(100.0)	$X^2=38.69^{***}$ df=15
	사무관리직	117(66.9)	23(13.1)	14(8.0)	21(12.0)	175(100.0)	
	판 매	22(50.0)	10(22.7)	0(0.0)	12(27.3)	44(100.0)	
	서비스직	61(61.6)	17(17.2)	3(3.0)	18(18.2)	99(100.0)	
	단순노동직	56(57.1)	17(17.3)	12(12.2)	13(13.3)	98(100.0)	
	자 영 업 무 직	12(41.4)	6(20.7)	0(0.0)	11(37.9)	29(100.0)	
남편의 수 입	없 음	12(44.4)	6(22.2)	0(9.0)	9(33.3)	27(100.0)	$X^2=43.87^{***}$ df=18
	29만원 이하	22(52.4)	7(16.6)	1(2.4)	12(28.6)	42(100.0)	
	30 - 39만원	36(54.5)	13(19.7)	8(12.2)	9(13.6)	66(100.0)	
	40 - 49만원	56(52.8)	22(20.8)	11(10.4)	17(16.0)	106(100.0)	
	50 - 59만원	79(69.2)	10(8.8)	2(1.8)	23(20.2)	114(100.0)	
	60 - 69만원	40(69.0)	8(13.8)	4(6.9)	6(10.3)	58(100.0)	
70만원 이상	42(73.7)	7(12.3)	6(10.5)	2(3.5)	57(100.0)		
결 혼 생 활 년 수	5년 이하	51(70.8)	12(16.7)	2(2.8)	7(9.7)	72(100.0)	$X^2=25.18^*$ df=15
	6 - 10년	80(66.7)	18(15.0)	8(6.7)	14(11.7)	120(100.0)	
	11 - 15년	72(66.1)	13(11.9)	8(7.3)	16(14.7)	109(100.0)	
	16 - 20년	43(50.0)	12(14.0)	8(9.3)	23(26.7)	86(100.0)	
	21 - 25년	24(57.1)	7(16.7)	4(9.5)	7(16.7)	42(100.0)	
	26년 이상	17(42.5)	10(25.0)	2(5.0)	11(27.5)	40(100.0)	
자녀수	0명	5(62.5)	3(37.5)	0(0.0)	0(0.0)	8(100.0)	$X^2=30.53^*$ df=15
	1명	64(71.1)	13(14.4)	2(2.2)	11(12.2)	90(100.0)	
	2명	139(61.8)	25(11.1)	18(8.0)	43(19.1)	225(100.0)	
	3명	57(55.9)	21(20.6)	7(6.9)	17(16.7)	102(100.0)	
	4명	17(53.1)	8(25.0)	2(6.3)	5(15.6)	32(100.0)	
	5명 이상	5(38.5)	3(30.0)	3(30.0)	2(15.4)	13(100.0)	
가 족 형 태	핵 가 족	167(59.9)	48(17.2)	24(8.2)	41(14.7)	280(100.0)	$X^2=23.73^{**}$ df=3
	확 대 가 족	119(63.6)	25(13.4)	8(4.3)	36(19.1)	188(100.0)	

1)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의사소통차원에 따른 결혼적용도

의사소통 사 원	결혼적용		N(%)	M	S · D	비 고
	구분					
감 정 노 출 정 도	높 은 집 단		319(67.9)	121.02	18.37	t=2.87** df=468
	낮 은 집 단		151(32.1)	117.24	18.30	
언 어 표 현 정 도	개 방 집 단		360(76.6)	121.86	18.09	t=6.23*** df=468
	폐 쇄 집 단		110(23.4)	113.08	12.42	

1) **P<.01, ***P<.001

3. 결혼적용과 의사소통양식

1) 결혼적용과 의사소통차원(감정·언어)과의 관계

의사소통차원의 감정노출정도와 언어표현정도에 따른 결혼적용과의 관계는 표 7과 같다. 감정노출정도에 있어 높은 감정노출을 하는 경우가 67.9%, 낮은 감정노출을 하는 경우는 32.1%로 대체로 감정노출을 많이하고 있다. 감정노출정도에 따른 결혼적용의 차이에 있어서 감정노출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한 결과 유의한 (P<.001) 차이가 나타나 감정노출이 높은 집단의 결혼적용평균이 낮은 집단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감정이입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이 질이 높다고한 선행연구(Lewis & Spanier, 1979 ; Gottman, 1981)와 일치한다.

언어표현정도에 있어서는 개방적 언어표현이 76.6% 폐쇄적인 언어 표현은 23.4%로 많은 수가 개방형을 사용하고 있다. 언어표현정도에 따른 결혼적용은 언어표현이 개방적인 집단의 결혼적용평균이 폐쇄적인 집단보다 상당히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였다. 이는 Hicks와 Platt(1970), Boyd와 Roach(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혼적용과 개방적 언어표현은 밀접한 관계를 지님을 알 수 있고, 의사소통차원과 결혼적용 역시 중요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조사 대상자들은 감정노출이 높고 언어적 표현이 개방적인 친숙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의사소통양식과 결혼적용과의 관계

의사소통양식의 친숙형, 의견형, 억제형, 차단형에 따른 결혼적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p<.001)가 있음이 밝혀졌다(표 8). 친숙형의 결혼적용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의견형, 차단형, 억제형 순이었다. Fitzpatrick(1982)은 부부관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과 결혼적용이라고 하였는데 위의 결과를 볼 때도 두변인은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Hawkins의 이론에 따른다면 차단형이 가장 낮은 감정노출과 폐쇄적 언어표현이므로 결혼적용도 가장 낮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출이 많고, 언어표현이 폐쇄적인 억제형이 가장 낮은 적용도를 나타냈는데, Davidson(1984)의 공평이론(Equity Theory)에 의하면 부부 양측의 감정노출이 다른 경우 불공평한 관계가 형성되어 불만족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 결혼적용은 의사소통양식에 따라 유

표 8. 의사소통양식에 따른 결혼적용도

의사소통양식 결혼적용	의사소통양식			
	친숙형	의견형	억제형	차단형
평 균	122.24	120.41	110.16	114.28
Scheffe-test	a	a	b	b
F값 및 유의도	14.14***			

1) a, b문자가 다른 것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

2) ***p<.001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모두 채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용과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문제점과 갈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취업주부의 결혼적용과 의사소통양식의 학문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졌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비전문직 취업주부는 대부분이 비교적 높은 결혼적용을 하고 있고 의사소통차원에서는 높은 감정노출을 하고, 개방적인 언어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소통양식은 친숙형, 차단형, 의견형, 억제형순으로 기능적인 의사소통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은 결혼적용과 의사소통양식이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본 연구결과와 비추어 볼 때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 됨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양식도 간과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2) 가설 I의 결혼적용과 제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남편수입이 부인수입보다 많을 때, 취업동기가 경제적 이유에서 보다 비경제적 원인일 때, 부인취업에 대해 남편이 비협조적인 경우보다 협조적인 경우에, 부인의 직업이 써비스직, 단순노동직, 판매직순으로 결혼적용이 더 높았다. 또한 남편의 학력, 남편의 수입, 결혼생활년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부인의 학력, 가족형태, 자녀수에 따른 결혼적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가설 II의 의사소통양식과 제 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친숙형이 많고, 가족형태는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이 친숙형이 더 많았다. 또한 남편의 학력,

남편의 수입, 결혼생활년수, 자녀수에 따라 의사소통양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인의 직업종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의사소통차원의 감정노출정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가 결혼적용이 더 높았고, 언어표현정도가 폐쇄적인 경우보다 개방적인 경우가 결혼적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양식은 친숙형, 의견형, 차단형, 억제형순으로 결혼적용이 높게 나타났고, 결혼적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혼적용에는 부부의 직종, 부부의 수입, 결혼생활년수, 부인의 취업동기,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양식에서는 남편의 학력, 남편의 직종, 남편의 수입, 결혼생활년수, 가족형태, 자녀수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정노출정도, 언어표현정도, 의사소통양식과 결혼적용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간의 다양한 개성과 사고를 이해하고 폭넓은 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양식을 개발하고 잘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부부간의 원만한 결혼적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도시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용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양식의 형성조건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해 낼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그 대상을 대구지역으로 하였으므로 지역적 제한성이 있고,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판매직이고 일부가 단순노동직, 써비스직이므로 비전문직 취업주부 전체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2) 아직 전통적인 의식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직장생활로 인한 여성의 이중고를 감안하여 취업주부만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결혼생활과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은 부부간의 상호관계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객관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취업주부에 관한 측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주관적인 자원도 함께 고려함과 동시에 각 요인의 정확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된 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들을 보다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4)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으로 현재의 의사소통양식을 다루었을 뿐 그 의사소통양식을 형성하게 된 부부의 인성(personality)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을 고려함으로써 의사소통양식의 형성 배경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5) 보다 하층계급에 속하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행해져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들의 문제점과 갈등을 파악, 대응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직과 비전문직 취업주부간의 결혼적용과 의사소통 양식에 관한 비교 연구도 행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7). 직종별 여성취업자 분포.
- 2) 권정임(1981). 부부간의 대화를 통한 결혼생활 만족도. 영남대 석사논문.
- 3) 김경숙(1987). 기혼직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동대 석사논문.
- 4) 김경숙(1987). 기혼직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5) 김순옥(1972).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논문.
- 6) 김은주(1979). 도시부인의 직업 및 가정생활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대 석사논문.
- 7) 김인숙(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 제차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8) 김정옥·홍신혜(1987).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결혼. 여성문제연구 제15집.
- 9) 노동청(1986). 한국노동통계연감
- 10) 박경자(1981). 부부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생

- 활 행복도와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논문.
- 11) 박미령(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12) 박민숙(1985).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13) 박진숙(1977). 직업여성과 비직업여성의 결혼만족도. 동국대 연구논집 제2집.
- 14) 서동인(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 15) 송말희(1986).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16) 송성자(1985). 한국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 박사논문.
- 17) 신성자(1981). 기혼 직업여성의 부부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18) 원효종(1983).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과 의사소통 불안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19) 유영주(197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수행상의 문제. 서울대 가정대 논문집 2.
- 20) 유은희(1974). 한국도시부인의 결혼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학위논문집 개요.
- 21) 이기숙(1984).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적용의 변화. 부산대 논문집 제17집.
- 22)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19.
- 23) 이연주(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 24) 이효재·조 형(1975). 여성 경제활동 및 취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7, 267-291
- 25) 전길량(1988). 자기개방과 부부적용에 관한 상관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 26) 정용재(1985).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와의 상관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 27) 정혜은·서병숙(1983). 여성전문직 종사자의 가정내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여자교수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27-42
- 28) 조혜정(1983). 부부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 29)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2(2).
- 30) 최신덕(1973). 도시부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2.
- 31) 최외선(1979). 부부의 역할기대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 32) 田村喜代(1966). 結婚生活の 實驗的 研究. 東京學藝大學紀要 18, 77.
- 33) Blood, B. & Blood, M.(1960). *Marriage*. New : The Free Press.
- 34) Blood, Robert, O. & Wolfe, Donald, M.(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 Macmillan Co.
- 35) Booth, A.(1977). Wives employment and husbands stress : A replication and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645.
- 36) Boyd, L. & Roach(197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differentiating more satisfying from less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 37) Burke, R.J. & Weir, T.(1976). Relationship of wives employment status to husband, wife and pai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 38) Burr, Wesley, R.(1979). Symbiot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 42-111 in Burr, W.R., Hill, R., Nye, F.I. & Reiss, I.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ew York : The Free Press.
- 39) Davidsson, B., Balswick, J. & Haverson, C.(1983). The relation between spousal affective self-disclosure and marital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 381.
- 40) Deacon, R.E., & Firebaugh, F.M.(1975).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41) Figley, C.R.(1973). Child density and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280.
- 42) Fitzpatrick, M.A., & Indvik, J.(1982). The instrumental and expressive domains of marital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8, 195.
- 43) Gibb.(1961). Diffensive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11.
- 44) Grick, Ira. D. & Kessler, David. R.(1980). *Marital and Family Therapy*, New York : Grune & Stratton, Inc.
- 45) Glenn, N.D. & Weaver, C.N.(1978). A multivariate multisurvey study of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269-282.
- 46) Goode, W.J.(1953). Economic factors and marital stability, In Winch, R.M. and McGinnis, R.M. (eds.). *Selected Studi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N.Y. : Henry Holt and Company.
- 47) Goode, W.T.(1982). *The family* 2nd ed.,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48) Gottman, J.M., Porterfield, A.L.(1981).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e nonverbal behavior of marital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818.
- 49)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 50) Hawkins, J.A., Weisberg, C. & Ray, D.W.(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 51) Hawikins, J.A., Weisberg, C. & Ray, D.W.(1980). Spouses difference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 52) Hicks, M.W. & Platt, M.(1970).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 A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561.
- 53) Hoffman, Lois, Wladis, Nye, F.I., Bahr, Stephen J., Emlen, Arthur. C., Perry, J.(1974). *Working mothers*, Jossey-Bass, Inc., Publishers.
- 54) Houseknecht, S.K. & Macke, A.S.(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867.
- 55) Jorgensen, S.R. & Goudy, J.C.(1980). Self-disclosure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 The relation examined, family relation.
- 56) Kessler & Macrae, J.R.(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216-227.
- 57) Lawrence, S.B.(1959).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American Book Co.
- 58) Levinger, G. & Senn, D.J.(1967). Disclosure of feelings in marriage, Merrill-Palmer quarterly, Davidson, B., Balswick, H(1983), 재인용.
- 59) Lewis, R.L. & Spanier, G.B(1979). Theorizing about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R.

- Burr et a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 The Free Press.
- 60) Nye, F., Ivan, Berardo, Felix M.(1973). The family : Its structure and interaction. New York : The Macmillan Co.
- 61) Plolma, M.M. & Garland, T.(1970). Role Conflict and married professional woman. Lexington mass : Xerox.
- 62) Safilios & Rothchild, C.(1967). A comparison of power structur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urban Greek and French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681-691.
- 63) Satir, Virginia(1983). *Conjoint family therapy*, 3rd ed., Pal. Aito,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64) Terman, L.M.(1938). Psychological factors in marital happiness. N.Y. : McGrowHill book Co.

